

전남 서부권

‘주포 한옥마을’ 예상외 분양 저조

50가구중 15가구 신청...3.3㎡당 50만원 땅값 부담

합평군 추가접수 불가피

합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포 한옥 전원마을’ 분양 신청이 당초 예상과 달리 미진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접수가 불가피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왔지만, 실제 토지분양 신청은 15가구만 분양을 신청했다며 “당초 일반인들의 관심과 비교해 분양신청이 미진해 지속적으로 추가신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원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합평군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내년 말 전후로 은퇴자 중심으로 분양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받다 보니 입주자들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분양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우 손현주씨 CF 재능기부에 감동”

완도군 직원들 ‘팬클럽’ 화답

한 배우의 재능기부에 군 직원들이 팬클럽 결성으로 보답해 간단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군은 10~20대에 계는 세상에서 최고의 아빠와의 벅찬 여행을, 30~40대 주부에게는 아직도

배우 손현주씨가 오는 4월 완도 청산도에서 열리는 ‘2011 청산도 슬로 걷기축제’ 홍보 CF 모델로 출연한다. CF 촬영은 24일부터 3일간 청산도 슬로길에서 진행된다.

연인 같은 부드러움과 설렘을 주는 남편과의 여행을, 40~50대 중년 남성에게는 한 번쯤 내 마음과 통하는 옛 친구와의 여행을, 60~70대 부모에게는 믿음직한 효자 아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홍보 영상물을 찍을 계획이다.

완도해경 ‘헬프 콜’ 운영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양동신)는 낙도지역 근로자들의 인권유린 방지를 위해 인권보호 직통전화(122)를 개설하는 등 ‘도와주세요 헬프 콜’제도를 운영한다.

“여권, 우편 배달해 드려요”

해남군-우체국 협약...택배 서비스

해남군이 주민들의 여권발급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편 배달 서비스’를 실시, 호응을 얻고 있다.

는 중요 서류를 우편물 접수에서 배달까지 특별 취급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달하는 서비스다.

낙후마을 35곳 ‘마을기업’ 육성

도, 年 사업비 3억 지원

전북도는 전국최초로 오는 2014년까지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소득지향형 향토마을’ 100개소를 육성한다.

마을은 커뮤니티 형성, 소득자원 개발 등 기반구축 위주로 지원(2억)하게 된다.

봄 향기에 취하다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파업 지속하면 보조금 중단”

전북도·전주시 노사 양측에 타협 촉구

전북도와 전주시가 77일째 장기화하는 전주 버스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사 양측에 ‘통근 타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에 위치한 한 시설하우스내 블루베리가 때이르게 꽃을 피웠다. 기능성 식품으로 손꼽히는 블루베리는 콜레스테롤을 낮춰 노화방지와 뇌졸중 예방

버스 운행률을 80%, 시외버스 운행률을 90%까지 높이지 않으면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옛길·숲길·논둑길...“김제로 도보여행 오세요”

김제시가 옛길과 숲길, 논둑길, 마을길 등을 이은 ‘스토리가 있는 길’을 조성, 도보 여행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을 투입해 진봉면과 금구면 일원에 ‘새만금 마실길’과 ‘봉두산 마실길’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김제시는 새로운 여행문화 패턴인 도보여행에 눈높이를 맞춰 올해 상반기중에 부산산 관광자원을 선형(線形)으로 네트워크화해 이미 조성된 마실길과 연계시켜 최적의 도보길로 단장, 탐방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롭게 조성되면 도보 탐방객들이 많이 찾아와 지역민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산강변에 나만의 나무를 심자”

도, 내달 20일까지 ‘희망의 숲’ 참여자 모집

영산강변에 개인 소유의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됐다.

수채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1그루당 15만원에서 30만원정도인 버드나무, 낙우송, 왕벚나무, 은행나무, 팽나무, 자귀나무 등을 구입해 시·군 수목 식재 행사일에 심을 수 있다.

목포신항 컨테이너 물동량 급증 개항 첫 화물 전용 크레인 설치

목포신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개항 이후 처음으로 컨테이너 화물처리 전용 크레인이 설치된다.

레이 2기를 옮겨 설치하기로 했다. 목포항만청은 그동안 목포 신항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시설공사와 세부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설작업이 끝나는 오는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단신

전주시 ‘세원 발굴·증대’ 아이디어 공모

전주시는 4월 20일까지 ‘세원수입 세원발굴 및 증대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제안을 공모한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숨겨진 세원발굴 등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제안이면 된다.

군산해경, 새만금 내측에 공기부양정 투입

군산해양경찰서 ‘공기부양정’을 새만금 내측에 투입하기로 해 해상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기대된다.

변산파출소에서 새만금파출소로 3월에 이동시키기로 했다.

익산시청 공무원 ‘역사 학습 동아리’ 결성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최근 지역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해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을 상세히 파악해 익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결성됐다.

임실군 10억투입...임실천 생태하천 조성

임실군 임실천이 문화와 생태가 살아 숨쉬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본격 조성된다.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임실읍 성거리에서 두곡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구간을 대상으로 호안과 취입보를 정비하고 옛 하천물길 복원과 수질정화 습지·산책로·생태숲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